

매년 4,000여명의 미아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김은지(여/ 당시 만5세)
 일시: 2002년 11월 13일
 장소: 동작구 신대방1동 자택
 특징: 아랫배부분과 오른쪽다리에 화상흉터가 있음



김채은(여/ 당시 만7세)
 일시: 2002년 01월 19일
 장소: 경기 성남 모란시장
 특징: 노란잠바 착용, 115cm신장, 보통체격



강하나(여/ 당시 만6세)
 일시: 2002년 08월 15일
 장소: 변산 해수욕장주차장
 특징: 귀가 보통사람들에 비해 앞으로 나와있음



최정운(여/ 당시 만5세)
 일시: 2001년 08월 08일
 장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특징: 하늘색모자 착용



지승아(여/ 당시 만5세)
 일시: 2001년 03월 05일
 장소: 부산 송정해수욕장
 특징: 없음



김하은(여/ 당시 만8세)
 일시: 2001년 06월 01일
 장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특징: 우측볼에 찰과상 흔적, 좌측 코옆에 물린자국



서민호(남/ 당시 만6세)
 일시: 2001년 04월 29일
 장소: 부산역 광장
 특징: 얼굴이 가름하고 현편, 청모자 착용



박진현(남/ 당시 만7세)
 일시: 2001년 02월 22일
 장소: 부산 국제 시장
 특징: 없음



황지혜(여/ 당시 만7세)
 일시: 2001년 01월 01일
 장소: 경남 양산 환타지아
 특징: 빨간 원피스 착용, 치아가 고르게 남



박윤희(여/ 당시 만10세)
 일시: 2000년 08월 24일
 장소: 충남 보령시 성주면
 특징: 보조개 쌍꺼풀 있고, 윗입술이 두툼함



유준호(남/ 당시 만4세)
 일시: 1999년 03월 25일
 장소: 강동구 암사동
 특징: 코가 납작함, 귀가 약간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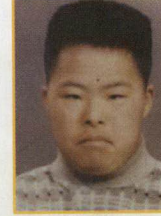
김태극(남/ 당시 만9세)
 일시: 1998년 09월 30일
 장소: 전북 정읍시 연지동
 특징: 당황하면 언어구사력이 떨어짐



김가혜(여/ 당시 만6세)
 일시: 1997년 2월 10일
 장소: 경북 경산군 입량면
 특징: 말을 잘못함, 오른쪽 눈 위에 물혹 있음



지한별(여/ 당시 만12세)
 일시: 1992년 08월 08일
 장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헤밀리아파트 친구집에서 놀다가
 특징: 키 146cm, 체중 36kg, 얼굴 검고 눈은 쌍꺼풀, 오른쪽 뺨에 굵은 자국, 실종당시 상의 노란색 남방, 반바지




이영호(남/ 당시 만4세)
 일시: 1998년 08월 02일
 장소: 삼선동 주공아파트
 특징: 뇌성마비, 엄마소리의 말을 전혀못함, 신체가 우람하며, 스포츠머리에 뒷부분에 새치가 많음, 자전거를 타고 나갔음



박용희(남/ 당시 만4세중)
 일시: 2001년 08월 15일
 장소: 영종도 용유동 깃별
 특징: 키 150cm가량 약간 통통한편 서울말씨 연한 청 칠부바지, 신발을 신지 않았음



김영근(남/ 당시 만9세)
 일시: 1994년 8월 27일
 장소: 경기 부천시 원미동
 특징: 피부가 짙고 쌍꺼풀이 있음 엉덩이에 까만 점




이규진(남/ 당시 만3세)
 일시: 2000년 04월 07일
 장소: 대구 달서구 진천동
 특징: 자폐증, 쌍꺼풀 있음, 콧등에 흉터, 작은눈

연락처: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 모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744번지 TEL: (02)963-1256, HP: 011-780-1256, 011-215-1890

이 소형인쇄물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 규정에 의해 제작한 것임
 제작자: 새천년민주당 후보자 노무현
 인쇄소: 성전 인쇄 (서울 중구 필동 3가 55-2번지 편광 빌딩 T.2275-5661)

새천년민주당
 www.minjo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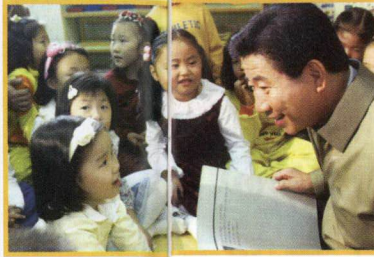


행복한 변화

노무현이 시작합니다.

기호 2번 국민후보 노무현

기적같은 단일화 - 국민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시절, 최루탄 가스에 시위군중들이 모두들 흩어질 때 부산 서면 거리에 홀로 앉아서 끝까지 남아있었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990년 YS가 3당합당을 할 때 그건 정치적 야합이라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당선이 보장된 정치1번지 종로를 버리고 지역감정과 정면대결하러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낙선하고 또 낙선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계보도 없이 조직도 없이 오직 원칙과 상식 하나로 옳은 길을 걸어온 정치인.

국민이 노무현을 대통령후보로 직접 뽑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농민집회에 나가 계란을 맞자, 농민들의 분노가 풀어진다면 백 번이라도 맞겠다는 대통령후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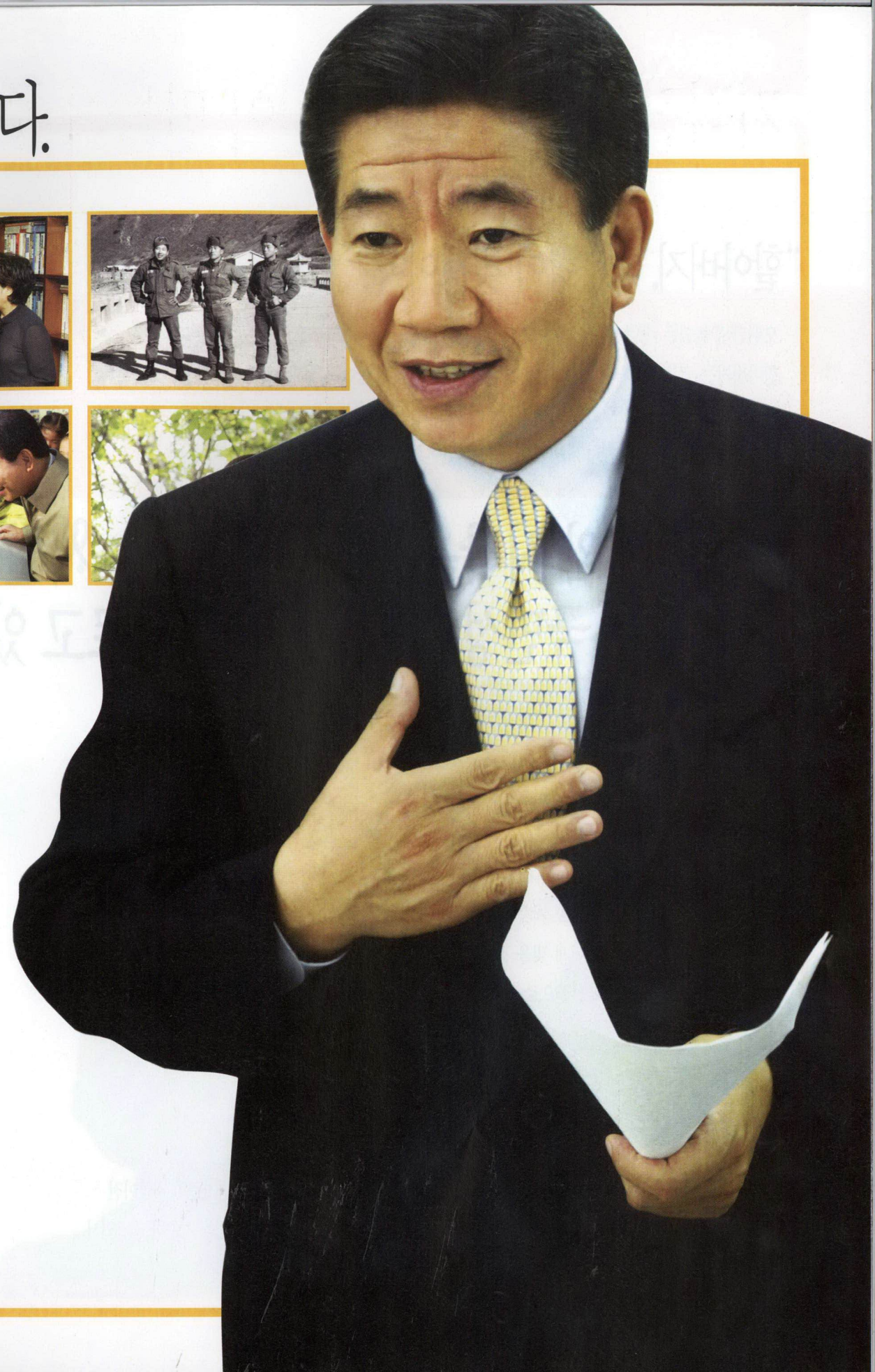
낡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 국민들이 단일화하라고 외치기에 국민경선으로 뽑힌 기득권을 포기한 대통령후보가 있습니다.

후보단일화가 낡은 정치를 새정치로 바꾸는 길이기에,

모든 불리한 여론조사 조건을 수용한 대통령후보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도 옳은 길만 묵묵히 걸어온 그 손을 국민이 들어주셨습니다.

국민이 노무현을 단일후보로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대통령이 빚쟁이야?”

오랜만에 놀러온 손녀가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무신 한 짝, 막걸리 한 사발에 표를 사고 팔았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기업에서 뭉칫돈을 받고 뒤를 봐주었던 지금까지의 정치도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손녀의 머리만 쓰다듬었습니다.

부정부패의 시작은 대통령선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무현은 국민성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뭉칫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선거가 끝나면 빚을 갚는 것처럼

뒤를 봐주는 것이 그동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노무현은 우리나라 정치사상 최초로 국민성금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특권층의 뭉칫돈이 아니라 국민이 커피값, 담배값, 택시비 등을 아껴 모아주신

국민성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그 지출내역도 국민에게 공개하는 노무현!

기업,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에게 빚을 졌으니,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원천적으로 부정부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노무현의 정치약속

- 책임총리제 실현 ● 권력형 부패 특별검사제 한시적 상설화 ● 청와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 병역기피, 탈세, 재산해의도피 등 특권층 비리 근절 ● 지역연고 탈피, 능력, 전문성을 기준한 공정인사
-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제청장,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이번 적금 타면 이사갈 수 있을까?”

저녁 밥상을 물리고 문득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을 만큼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집값은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선거 때마다 주택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고지만, 부자만 자꾸
더 챙길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애꿎은 담배만 꾸겼습니다.

보통사람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 후보는 누구입니까? 평생 특권만 누려온 사람입니까? 그 자신이 보통사람인 노무현입니까?

경기가 좋다고, 경제지표가 괜찮다고 할 때마다 텔레비전을 끄고 돌아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부강한 나라는 경제지표에 나타나는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시장에서, 경제현장에서 웃음꽃이 피어날 때 건설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은 지표로만 나타나는 경제가 아니라,
생활경제, 일자리 경제로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땀흘려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부자가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노무현의 경제약속



- 철의 실크로드 등을 통한 동북아중심국 도약
-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경영 투명성으로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
- 7% 신성장 달성 250만개 일자리 창출
- 자율성 확대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
- 정보화와 과학기술 대국 실현





“애 공부시키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친정으로 와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 학원비 때문에 맞벌이라도 해야겠어요.”
사위가 대기업 부장인데, 아이 둘 교육시키는 것도 힘들다는 현실이 친정어머니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진 사람의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노무현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입시경쟁, 커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 사실, 교육문제만큼 그 해법을 찾기 어려운 분야도 없습니다. 모든 후보가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물론, 노무현의 교육개혁도 공약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교육개혁 실천은 다릅니다. 우선 노무현은 선생님, 학부모, 학생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교육부장관만큼은 임기 중 그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서 공부 못했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노무현의 사회, 여성부문 약속

- 임기 중 50만호 국민임대주택 공급, 총 250만호 주택공급
- 보육료 국가 50% 지원
- 50만개 여성 일자리 창출
-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부담 해소
- 지역구 30%, 비례대표제 50% 여성할당
-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너, 나랑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동네 꼬마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힘자랑을 하다가, 누가 힘이 더 센가 내기하다가
한 꼬마가 얼마 전부터 배우기 시작한
태권도 자세를 잡으며 “붙을래?”하고 말합니다.
다른 꼬마가 빙그레 웃으며 의젓하게 대답합니다.
“주먹을 이기는 건 가위 바위 보! 보자기야!”



자식을 군대 안보낸 사람은 힘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자식을 군대 보낸 노무현은 대화로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 사람은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사람은 대화로 해결하자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있는 것은 총칼이 아니라 경의선 철도입니다.
노무현은 이산가족 교류, 경제협력,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 지원 등을
통해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찢어진 분열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노무현의 외교통일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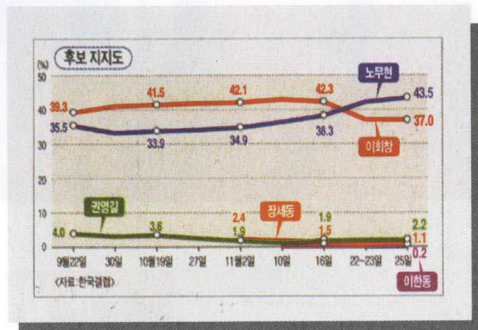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평화적 해결 ●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협력체 창설
- 국익중심의 실리외교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군 장병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으로 사기 앙양

모든 여론조사가 노무현을 대통령감 1위라고 했습니다.

정치부기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1/9)는 노무현을 대통령감 1위라고 했습니다.
증권전문가들도 노무현을 가장 선호하는 국가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전국 대학생 여론조사(11/4~11)에서, 일간지 여론조사(10/29~30) 정책지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법연수원생들이 생존한 분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노무현을 꼽았습니다.



(도표: 단일후보 확정 뒤 최종 여론조사)



11. 27일자 조선일보

지금, 국민은 노무현에게 깨끗한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1,298명 지지선언! 목회자 1000여명 지지선언! 여론주도층 2,500인 지지선언!
40-50대 생활정책자문단 405인 지지선언! 노동자 3000인 지지선언! 치과의사 203인 지지선언!
'여성 2002' 지지선언! 해외유학생 700인 지지선언! 외국거주 교육자, 엔지니어, 예술인, 의사, 종교인 등 지지선언!
장애인 지도자 30인 지지선언! 부산 택시기사 800여명 지지선언! 윤도현밴드를 비롯한
문성근, 명계남, 이창동 감독등 뜻있는 수많은 문화예술계 인사 지지선언!

지금, 수많은 지식인, 전문가, 여론주도층 및 국민들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들불처럼 일어나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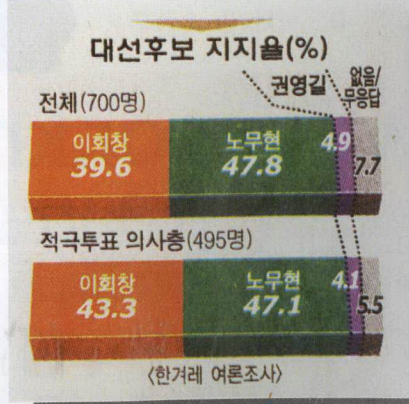
극적인 단일화로 지지율 급상승! 확고한 1위 확보!

● 단일화 이후 지지도 (25, 26일 실시, 단위: %, %P)

여론조사기관	이회창	노무현	격차
문화일보-YTN	39.1	48.2	9.1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	35.2	42.2	7.0
SBS-TN소프레스	38.6	45.7	7.1
KBS-갤럽	37.0	43.5	6.5
MBC-코리아리서치센터	35.8	42.1	6.3
중앙일보	33.2	41.8	8.6
한겨레신문	39.6	47.8	8.2

민주당의 지지율이 34.4% 대 29%

11. 27일자 한국일보



11. 27일자 한겨레(조사일:25일)

이회창-노무현 지지도 여론조사

연론사(조사기관)	이회창	노무현
한겨레(리서치플러스)	39.6	47.8
중앙일보(자체)	33.2	41.8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	35.2	42.2
문화일보-YTN(TNS)	39.1	48.2
KBS(한국갤럽)	37.0	43.5
MBC(코리아리서치)	35.8	42.1
SBS(TNS)	38.6	45.7
CBS(윌드리서치)	30.8	35.6

(조사일:25일)

11. 27일자 국민일보

희망의 나라로 노를 저어갑시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시간만 내주십시오

정치가 지겹다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노무현후보 홈페이지를 들르고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일할수록 손해보는 현실이 싫다고, 자식이 스트레스 안받고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민을 결정했던 분이 노무현 후보 홈페이지를 보고 대한민국에 남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성화에 못이겨 마지못해 노무현 후보의 홈페이지에 들르신 분은
밤을 꼬박 새우다 국민성금을 내셨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실린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쓰면서 노무현을 대통령후보로 만들고,

또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읽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밤을 꼬박 새울 지도 모릅니다.

너무 행복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이 눈앞에 보이니까요.



▼ 노무현 홈페이지 오시는 길

www.knowhow.or.kr

▶ 인터넷 주소입력줄에
한글로 "노무현"을 입력하면
곧바로 노무현후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원칙과 상식을 지켜온 사람, 국민후보 노무현입니다.

1946년, 경남 김해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71년, 강원도 인제에서 34개월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1975년, 노동을 하여 책을 사고 주경야독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1977년, 대전에서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81년, 부림사건때 죄 없이 구속된 학생들을 변호하면서 인권변호사로 거듭났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부산에서 주도했습니다.

1988년, 부산 동구에서 5공실세 허삼수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5공청문회를 통해 전국에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1990년, YS의 3당합당을 반대했습니다.

나라 망치는 지역감정만큼은 편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역감정을 악용한 정치세력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2000년, 당선이 보장된 종로를 버리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으나, 또 떨어졌습니다.

국민은 그를 위해 정치사상 최초로 정치인 팬클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2001년, 해양수산부 장관에 취임했습니다.

2002년, 조직도 계보도 없이 원칙, 소신, 능력만으로 대통령후보경선에 나섰습니다.

정치사상 최초로 국민이 직접 노무현을 대통령후보로 뽑았습니다.

정치사상 최초로 단일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지금, 노무현은 정치사상 최초로 기업의 뭉치돈이 아니라,

국민성금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19일,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당당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만납니다.

국민후보
기호2번 **노무현**